

■ ‘청소년 일자리대책’ 지역기업 반응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 환영 분위기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놓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차량용품 관련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대표(52·여)는 최저임금 인상·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울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한 시름 덜게 됐다.

박 대표는 “몇년 간 월급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구인난에

## 청년구직자 지원·지역 일자리창출 보탬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공식 논평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것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

금 지급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양자 균형시각에서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정부 대책에 반갑다는 반응이다.

전남대학교에 재학중인 김 모씨(26)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너무 커, 지역 내 대학생들

이 고임금 직장을 찾아 광주를 떠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많은 학생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그동안 정부 대책이 창업쪽으로 편중된 측면이 컸다”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 모두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 최 모씨(27)는 “일단 대통령 의지에 공감하고,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으로 발표돼 환영한다”며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일자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지속 추진할 것이다”며 “세부내용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동 기자

###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20일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8년 결산총회’에 참석한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20일 중앙본부에서 열리는 ‘2018년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다.

### 신한카드, 승인 내역 알림 스마트폰 앱 ‘판’ 무료 이용

신한카드가 카드 승인내역을 신한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신한 판(FAN)에서 푸시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문자 메시지로 받던 알림을 스마트폰 앱으로 받는 것으로, 월 수수료 200원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한 판 앱에 들어가 설정에서 ‘앱 푸시 알림’에 동의한 후 메뉴에서 금융→카드 서비스→카드사용알림→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호텔 숙박권 등 선물도 준다.

### 아시아나, 저소득층 학생에 기부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조식비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7억6,000여만원을 기부했다. 이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급식 형태로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 먹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서울 시내 40개 학교에 있는 666명의 학생이 조식 혜택을 받았다.

김기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아침밥 지원 사업 이후 해당 학생들의 결석·지각이 현저히 줄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신입 500여명 공채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500여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219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120명, 전산직 7명, 기술직 2명 총 438명으로 일반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사회형평적 특별채용도 할 예정이다.

채용방법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달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우리은행-토킹코리아 업무제휴

우리은행은 16일 토킹코리아와 한국어 금융·교육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토킹코리아는 한국어능력시험 온라인 모의테스트를 하며 관련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금융·교육 융합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설명회를 열고, 우리은행 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 성실하게 빚 갚는 채무조정자 돕는다

### 신용회복위, 소액금융 지원 기준 완화

신용불량의 벼랑 끝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는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더 빨리 생계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6개월간 성실 상환한 채무자의 경우 기본금리가 3.0%에서 2.9%로 인하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8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를 갖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농촌관광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앞장”

### 전남농협, 광주·전남 팜스테이 협의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9일 지역본부 8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팜스테이 협의회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팜스테이 마을 육성계획을 설명하고,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마을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 박말녀 회장은 “팜스테이 마을 대표들이 농업농촌을 지켜나간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항상 활력이 넘치는 체험마을을 만들어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인 농촌의 가치를 지켜나가지”고 말했다.

박태선 전남지역본부장은 “팜스테이를 통한 마을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알리고 체험마을 운영방

법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는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결성돼 현재 31개 농어촌체험 마을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최근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설명회

### 신보 호남본부, 기업당 최대 3억 보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윤태준, 이하 ‘신보’)는 최근 신보 호남 영업본부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호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소재 35개 사회적경제기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한 지원기관 4곳이 참여한 가운데, 신보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800억원, 호남지역에는 12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영업본부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운용 대상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

활기업이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를 신보 최저 수준인 0.5%로 정하고 보증비용 또한 100% 전액보증서로 운용하는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통해 호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윤태준 본부장은 “올해 2월 신보에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되면서 지역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 전남우정청, 머니그램 특화지점 우체국 운영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해남 송지우체국을 머니그램(MoneyGram) 특급송금 특화지점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머니그램 특급 해외송금은 은행계좌 없이도 전 세계 200여 국가, 35만여 지점(은행, 편의점 등)에서 송금 후 약 10분 이내 수취가 가능한 서비스다.

특화지점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8개 언어가 지원되는 번역앱이 설치된 태블릿 PC가 비치돼 있어 외국인 고객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

한편 머니그램 특화우체국 운영 기념 이벤트도 풍성하다. 이벤트 기간인 8월 말까지 특화우체국에서 머니그램 해외송금을 이용하면 2,000USD 송금시 기존에 85USD였던 수수료가 14USD로 송금에 관계없이 송금할 수 있다.

/유형동 기자



aT 김명곤 감사는 최근 초도순시 차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혁신교육을 실시했다.

### 김명곤 aT 감사, 광주전남 순시·청렴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명곤 감사는 최근 초도순시 차 광주전남지역 본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

들을 대상으로 청렴혁신교육을 실시한 뒤, 청렴 유적지를 탐방하며 선조들의 청렴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형동 기자

## 가업승계 창업 무료 교육생 모집

### 전남진흥원, 해남 청년미취업자 컨설팅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오는 30일까지 ‘가업승계 창업지원 무료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남도도와 해남군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해남군 2040세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에 부합한 실증 중심 가업 승계 창업 교육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

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법률과 경영, 재무회계와 세무부터 마케팅까지 창업 전반에 대해 교육하며, 컨설팅과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이번 과정은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교육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학기 학점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과 해남군 내 거주자는 우대한다.

오창렬 전남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남군 도처에서 가업을 잇고 있는 군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형동 기자